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금천새마을금고

공동의 복지 추구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금천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금융협동조합이며, 금융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금융업에 헌신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 조직과 협동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금천새마을금고는 신뢰받는 지역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환원사업, 장학사업,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및 독거가정 지원사업에 집중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임번수 이사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금천새마을금고(이사장 임번수)의 기본이념은 이웃 간의 화합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근검, 절약, 저축을 통해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47년 전, 동사무소의 작은 사무실을 빌려 자본금 15만원으로 시작한 금고는 처음에는 은행이라고 보기 힘든 작은 규모였지만, 지역 주민들의 믿음과 지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금천새마을금고의 행사에 가족처럼 몰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그 결과 현재 4587억원 규모의 새마을금고로 발전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 덕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더 나은 생활공동체를 위한 사명감과 사회 환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지역 금융협동조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1989년부터 매년 지역사회의 인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금천새마을금고 전경.

금융기관을 단순히 이익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 극복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함께 노력

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각종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금고 인근의 연로한 주민들을 위해 겨울철마다 32개소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사랑의 줌도리회'를 발족하여 매월 쌀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수사진 무료 촬영과 매년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교실과 지역 문화 행사에 무료 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작년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아 투명 경영을 선도하는 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시기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한 노력 덕분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에, 주민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시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며, 특히 노약자 및 독거가정 지원사업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금융기관을 단순히 이익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주에 없어서는 안 될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며,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거래 회원을 크게 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을 증진시켜, 더 나은 지역 금융협동조합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올해부터 금고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ESG 운영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그린MG, 휴먼MG, 소셜MG, 신뢰MG 추진단을 통해 환경경영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야간방범 활동 및 지역사회공헌 활동 홍보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하절기 열무김치 나눔봉사.

충북도, 임산부 태교 여행 보내드려요!

전국 최초 임산부 태교여행 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충북도는 임신·출산·육아 친화환경 조성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4개 휴양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환경 조성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충북도와 4개 휴양시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임신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내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교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내 소재한 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태교 여행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태교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이용권, 인피니티풀과 스파 등 부대시설 이용권 뿐만 아니라 사상체질 진단

과 한방차 시음(제천 포레스트&레스트리 리솜), 목장체험(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최고급 민물장어 미식체험(일라이트 호텔), '불뿔' 체험(스테리움) 등 임신부를 위한 각 시설별 40만원 상당의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알찬 구성으로 준비돼 있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로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달 1일부터 시설 이용할 수 있으며, 동반 1인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안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보제공 플랫폼 '가치자랑'(https://gachi.chungbuk.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의료비후불제 확대 지원

9월부터 적용 대상 확대... 다자녀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

충북도는 지난 12일 오는 9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 정책확대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확대 대상은 도내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수혜 범위가 기존 45만명에서 도민의 절반 수준인 81만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추진에 더 큰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급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적 약자의 큰 범주에 포함되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개월간 보건복지부를 설득

한 끝에 다자녀가족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확대를 통해 다자녀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부모)는 30세부터 50대에서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이들의 치아교정 치료의 수혜 범위도 넓어지며,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목돈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자녀가구 자녀에게 자신감과 건강한 성장을 도울 것이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용자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북형 신개념 의료복지제도로, 지난해 첫 시행 이래 많은 도민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달 12일 기준으로 총 869명이 사업을 신청했다.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수여식.

청주공항 '반값' 셔틀주차장

■ 주 소: 청원구 외남동 76-1 (4KM)
 * 운영시간: 07~20시(시간 외 예약 / 1일 5천원) ※ 400대 동시주차

■ 주차배상 책임보험, 운행차량 종합보험, 차단기, CCTV 설치

■ 셔틀차량 운행(솔라티 15인승, 넥쏘)

■ 문의·예약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 박종룡 대표이사]

- ☎ 010-5461-8555 / 010-5178-4756

단양보건의료원 개원 한달 1만여명 '진료'

응급의학·소아청소년·비뇨기과 등 10개 과목

단양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 개원 한 달 만에 1만1258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응급실 이용 주민은 임시 개원한 6월을 포함해 두 달 동안 모두 804명이 이용했다.

지난달 1일 개원한 보건의료원은 연면적 2996㎡에 지하 1층, 지상 2층, 30병상으로 건축됐다.

의료원은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한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0개 과목을 진료한다.

안과(화·수)는 서울 가톨릭대학, 산부인과(화·목)는 충주의료원, 비뇨기과(목)와 소아청소년과(화·목)는 제천명지병원과 협업으로 정해진 날짜에 진료된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의사 5명, 간호사 8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군민들의 위급상황을 돌보게 된다.

의료원에는 CT를 포함한 100여종의 최신식 의료 장비와 위급



단양군보건의료원 응급실 및 구급차.

상황 시 환자 이송을 위한 고상형 구급차도 24시간 대기한다.

또한 매주 월요일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진료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

스 매너, 고객 대응 방법 및 직무 역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접수는(☎043-420-7700)로 응급실 문의는(☎043-420-0139)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난임시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난자를 냉동한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청주시 보건소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임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 난자

를 해동하는 비용을 포함한 체외 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를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다.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

혼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에 보건소에 방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평균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급이라도 젊을 때 난자를 냉동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충주시, 찾아가는 스마트폰·키오스크 교육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충주시가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중원교육문화원, 충주우체국, 중원도서관을 비롯해 면 지역 17개 경로당을 방문해 40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가 시행 중인 '스마트경로당 와이파이 사업'과 연계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과 키오스크 실습교육은 어르신들에게 큰 만족감을 제공했다.

시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화에 친숙해지고 정보화 역량을 강화

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정보통신과(☎043-850-5315)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 | | | |
|---|----------------------|---------------|-----------------------|
| 발행인 | 유응모 |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 박상준 |
|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 | | |
| 전화 | 043-234-0840 | | FAX : 043-234-0849 |
| E-mail | cbbokji043@naver.com | | 홈페이지 : www.043w.or.kr |

음성군, '대소청소년센터' 개관식 진행

전문적·체계적 운영 위해 위탁운영 방식 전환

청소년의 끼와 꿈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공간인 '대소청소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7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조병옥 음성군수, 김영호 음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청소년 유관 단체장, 청소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소청소년센터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왔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군은 위탁운영 단체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지난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공동청소년문화정보센터,

전라남도교육청 가정형Wee센터, 대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을 운영 중으로,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오는 2027년 6월까지 3년간 대소청소년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조병옥 군수는 "대도시와 비교하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대소청소년센터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대소청소년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소청소년센터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북카페, 플레이존, 노래방, 영화방 등의 공간을 마련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음성군에 위치한 '대소청소년센터' 전경.

제천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신규 사업 추진

결혼에서 양육까지, 4개 사업 4억400만원 투입

제천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달부터 4종의 저출생 대응 맞춤형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사업은 결혼, 임신, 출산의 선순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4개의 사업에 도비·시비를 포함하여 4억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출산의 선행 지표인 결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액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5%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세부터 39세의 신혼부부가 1000만원

을 대출하면, 1년 최대 50만원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임신을 한 산모를 위해 힐링 태교 패키지도 지원한다.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들에게 40만원 상당의 도내 숙박시설에서의 여행 패키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한다. 도내 숙박시설은 제천 리솜리조트와 스테리움(카라반), 증평 벨포레 리조트, 영동 일라이트 호텔 등 4개소이다.

세 번째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관내 5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초(超)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으로 대상 가구에 대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임신부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올해 5월부터 지원하여 산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50만원씩 3년간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jecheon.go.kr)을 참고하거나, '결혼 및 출산비용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은 기획예산과(☎043-641-5057, 5059),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은 보건소(☎043-641-3227)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행복택시 전용카드 사용 전면 시행

주민 1500원 부담, 군에서 나머지 비용 지원

진천군은 이달부터 행복택시 전용카드 사용 전면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까지 700m 이상 떨어진 41개 마을에서 주민이 택시를 이용할 때 1500원만 부담하

고, 군이 나머지 요금을 지원하는 교통복지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택시 운행이자를 토대로 정산이 이뤄져 왔다.

이번 행복택시 전용 카드 사용을 시행으로, 대상마을 주민

들의 탑승 정보를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비용 정산에 활용해 행복택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 구분 | 기부 식품군 | 모집가능기한 |
|----------|----------------------------|------------------------------|
| 가공 식품 | 제과류 |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
| | 즉석식품 |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
| | 냉동식품 |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
| | 통조림 |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
| 장류 및 식용유 | 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
| | 소스류 |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
| | 기름류 | 식용유, 참기름 등 |
| 음료류 |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 |
| 신선 식품 | 육가공류 | 햄, 소시지, 베이컨 등 |
| | 농산물 |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
| 제빙류 |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 구분 | 종류 | 모집가능기한 |
|-------------|--------------------------------|------------------|
| 세제류 |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 최소 90일 이전 |
| |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 최소 60일 이전 |
| 휴지류 | 화장지 | 최소 60일 이전 |
| | 물휴지 | 최소 90일 이전 |
|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 최소 60일 이전 |
| |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
| 신체 위생용품류 |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 최소 90일 이전 |
| |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 최소 60일 이전 |
| 여성 위생용품류 | 생리대 | 최소 60일 이전 |
| | | |
|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 최소 60일 이전 |
| | 가정용 살충제 | 최소 90일 이전 |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괴산군,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선정

65세 이상 저소득 생계·의료 수급자 등 우선 공급

괴산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주거와 돌봄을 한 번에 제공하며 복지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의 사전 컨설팅 참여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

다.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및 기금은 173억으로, 총 223억원의 예산이 괴산읍의 4924㎡ 면적의 부지에 200세대 규모로 고령자복지주택을 조성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과 LH는 공동사업으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

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 상층부에는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안전손잡이, 낮탁 이조절세면대, 문턱제거 등이 적용된 무장애(Barrer-Free) 설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괴산군은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40%에 이르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송인현 군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괴산에 꼭 맞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인복지 선도모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영동군, '청년 맞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4대분야 40개 과제 추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영동군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맞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이 열어나갈 미래, '청년당동' 영동청년기본계획 NO.1'을 비전으로 청년이 스스로 주도하는 영동형 '청년 맞이' 사업이다.

군은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청년단체와의 심층 면담을 실시했

다.

또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일자리(16개 과제), 주거(7개 과제), 문화·복지(11개 과제), 참여(6개 과제) 등 4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이 사업에는 모두 8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동형 스마

트노동단지 조성(462억원), 일자리 연계형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95억원),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70억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재정과 운영지원 등 37개 사업(188억원)이 추진된다.

특히 지역 특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영동특화 청년창업육성 지원(1억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40억원),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6100만원) 등이 있으며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청년센터와 연계한 청년 주도형 참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

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의 분야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영동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옥천군, 취약계층 이웃사랑 후원 줄이어

보은옥천영동축협·옥천군청 기독교교회 등 나눔

옥천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후원이 줄을 잇고 있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구희선)은 지난 14일 수해 가구를 위해 선품기 36대(100만원 상당)를 옥천군에 전달했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지난해에도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사골곰탕 750팩을 후원하는 등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구희선 조합장은 "수해 지역

주민들이 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나눔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나눔재단 옥천지사(지사장 김용철)는 지난 14일 이웃사랑 후원금 300만원을 옥천

군에 기탁했다. 국민연금나눔재단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8월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옥천군청 기독교교회(회장 강철)는 지난 14일 수해 가구를 위한 100만원 상당 선품기 등의 물품을 옥천군에 전달했다.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 본격운영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마을 단위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증평군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마을(화성3리, 용강3리) 온마을돌봄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르신들은 무더위 속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마을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온마을돌봄센터는 뜨개교실, 인형만들기, 건강체조와 같은 건강·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지역 내 고등학교와 연계한 1·3세대 피부미용, 염색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마을 어르신의 일상이 바뀌는 데는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온마을돌봄사의 역할이 크며,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령으로 대외적 활동이 없던 어르신에게는 마을 프로그램과 생산적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가정 내 높은 계단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어르신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연계하며 마을 내 크고 작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마을 단위 생산적 공동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범마을 특성과 어르신 수요를 반영해 찜채소, 버섯을 재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과 협의를 마쳤다.

또 군은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 의료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찾아가는 방문 약(藥)손 교실'을 운영한다.

어르신들은 평소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높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안내하고 1:1 맞춤형 복약지도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노인 돌봄 사업 등과 연계해 보건·의료 분야를 확장하고 어르신들의 수요가 큰 병원동행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증평군, 안전 관리 스마트기기 보급

스마트기기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



증평군은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스마트기기 배부 및 사용교육을 실시했다.

증평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며 스마트 안전도시

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선정된 고령노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45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

틀에 걸쳐 스마트기기 배부 및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손목 착용형 스마트기기는 체온·심박수·산소포화도·낙상 등 취약계층의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착용자 및 보호자에게 경고를 보내 위험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 긴급상황이 감지될 경우, 사전 연결된 보호자 및 관리자에게 즉시 위치가 전송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군에서는 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배부 후에도 스마트기기 착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보은군, 무더위쉼터 29개소 추가 지정

생수·식염 포도당 무료 보급 등



폭염 대응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보은군수가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보은군이 민간시설에도 무더위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폭염 대책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보은군은 관공서와 경로당 등 63

개소에서 설치된 무더위쉼터를 민간 시설인 금융기관, 병원, 약국 등에 29개소를 추가 지정, 9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은 이날 보은신협에서 최재형 군수, 우병기 보은신협 이사장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위쉼터 신규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무더위쉼터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가 설치돼 있고 군에서는 생수와 식염 포도당을 무료 보급한다. 또 양심 양산을 비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보은군은 지난달 26일 최 군수 등 관계자들이 무더위쉼터 현장 상황을 파악한데 이어 29일에는 '무더위 대책 관련 부서 긴급회의'를 열어 무더위 대응에 나섰다.

군은 이와 함께 보은읍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1일 1회에서 3·4회로 늘려 운영하고 버스 승강장 5곳에 에어컨 11대를 설치해 무더위 속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면 | 규격 | 배색 | 금액(원) |
|---------|-----------------------------------|----|---------|
| 1면 | 4단 (360mm x 138mm) | 컬러 | 300,000 |
| |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 컬러 | 100,000 |
| 2면 ~ 7면 | 4단 (360mm x 138mm) | 흑백 | 200,000 |
| 8면 | 4단 (360mm x 138mm) | 컬러 | 250,000 |
| |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 | |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 청년 지원

14일부터 울산·인천·전북·충북에 문 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광역시·도에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관리한다.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가

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 때까지 책임지고 밀착 관리한다. 먼저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족돌봄청(소)년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한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14일부터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 19세부터 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청년 개개인의 성장과 회복을 목표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학업 정보, 민간의 장학사업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수령 가능

경제적 안정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교육부는 지난 14일 양육수당 지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부터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

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네이버 지도 검색 가능

복지부,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이달 네이버 지도에서 주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한 뒤, 기관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이용 가능시간 확인 등을 위한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해진다.

지도에 표시되는 기관정보 중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외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추가돼 정부가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수량(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실물카드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이다.

그간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찾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는 곳 주변의 기관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공,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강화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번째 과제로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이로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60여만명이 10개 사업, 1만2000여개의 제공기관 정보를 검색·선택·예약함에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달 11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학기 입학예정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앞선 1차 신청을 놓쳤던 재학생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

학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산정하는 '월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8구간(1145만 9826원) 아래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지만, 최상위 8구간은 학기별

최대 175만원(연간 최대 350만원)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다만,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월 소득인정액 1718만 9739원 이하)인 학생 중에 자율 배분된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간 동안은 24시간 내내 접수를 받지만, 마감일인 오는 9월 11일에는 오후 6시

까지만 접수를 받으니 유의해야 한다. 재단은 신청자의 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모나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의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 후 늦어도 다음달 19일 오후 6시까지 정보제공 동의를 마쳐야 하며, 추가 서류도 이때까지 내야 한다.

추가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자는 신청 시 입력했던 가족의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과 상이할 경우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 1599-2000)나 각 지역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 첫 접종 시기 | 백신 | 필요 접종 회수 | 접종 간격 |
|----------------------------|--------|----------|----------------------------------|
| 14세까지 (15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 HPV 4가 | 2회 | 2차: 첫 접종 6~12개월 후 |
| 15세부터 (15세가 되는 생일 이후부터) | | 3회 | 2차: 첫 접종 2개월 후 3차: 첫 접종 6개월 후 |

HPV 국가예방접종 첫 접종 시기별 접종 회수 및 간격.

'06년생 여성 청소년·'97년생 저소득층 여성 올해까지 무료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받기를 당부했다.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

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구

인두암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1개국에서 접종하는 안전성이 인정

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06년생부터 '12년생 여성 청소년과 '97년생부터 '05년생 저소득층 여성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첫 접종 시기에 따라 2회 또는 3회)하고 있으며, '11년생부터 '12년생에게는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06년생 여성 청소년과 '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역별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분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HPV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음건강 자가검진, SNS 채널로 손쉽게



질환별 자가검진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통해 우울증 자가검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권영숙)와 (주)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 간 협업으로 마련됐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햇빛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왔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후 자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로 이동하여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한다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 온라인 쇼핑몰 개설 인식개선·자립도 향상 등 기대... "구매 동참"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김윤경)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커넥트 웨이브의 지원을 받아 주관하고 공모한 '2024년 직업재활시설 온라인 쇼핑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의 주 생산품은 최고급 밀가루와 전분을 사용하며 60년 전통의 국수 명인 권오길 레시피를 직접 전수받아 생산하는 건국수이다.

그동안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40여 명의 장애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

장을 위해 일일점장 이벤트와 무료 국수나눔 등 건국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로 근로 장애인의 최저급여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활동들이 이어왔다.

국수 명인의 레시피와 장애 노동자의 권리 실현이라는 시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판매 실적이 저조하였던 담쟁이 국수는 이번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김윤경 원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가 높아지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와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감에 있어 장애인 자립도가 향상되며 자연스럽게 고립감과 소외감이 감소되어 사회적 문제도 더불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쟁이의 국수이야기 쇼핑몰 홈페이지 메인화면.

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다함께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품인 담쟁이의 국수이야기를 만나보려면 PC 및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담쟁이의국수이야기.com'을 입력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문의는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043-295-9940)으로 하면 된다.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는 지난 8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빨래터' 개소식을 가졌다.

증평군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위한 빨래터 개소

쾌적한 주거환경, 세탁 지원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김남순)는 지난 8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빨래터' 개소식

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영 군수, 조윤성 군의장, 빨래터 운영 협약 및 지원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빨래터는 지역 내 노인 및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불 세탁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는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빨래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빨래터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외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모두가 행복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순 센터장은 "빨래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유관기관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내 조성된 빨래터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천복지재단, 노인주거환경 개선 힘쓴다

이음봉사단과 업무협약

제천복지재단(이사장 유용식)은 지난 8일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음봉사단(대표 이준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자인하우스 사업은 에이징인플레이스사업의 일환으로 주거 취약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래식화장실 개보수, 안전생활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제천복지재단과 이음봉사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활동연계,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 문화 조성 등 협약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홍보 등을 약속했다.

앞서 재단은 제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45가구를 발굴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개선 시급 가구에 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이음봉사단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음봉사단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외 지역 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유용식 이사장은 "재단과 봉

사단이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함께 힘을 합하며 주거 취약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에 앞장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을 재단과 함께하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다양한 사업은 제천복지재단 누리집(jcwf.or.kr), SNS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번호(☎ 043-647-1237)로 문의하면 된다.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일 제1회 지역아동센터 연합 '희망나래 운동회'를 개최했다.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건강한 아동 성장 지원

1회 '희망나래 운동회' 성료

오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응모)은 지난 7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개최한 제1회 지역아동센터 연합 '희망나래 운동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관할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오송읍, 강내면)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130명의 아동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운동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줄어든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특히 놀이 중심의 신체적 활동과 문화 활동 경험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운동회를 후원한 한국철도고속전기사업단 김희영 단장은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속

전기사업단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응모 관장은 "이번 운동회를 통해 아동들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연합 운동회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양노인복지관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흑마늘농지담당자의 후원

단양노인복지관(관장 최은하)은 지난 14일 말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18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단양흑마늘농지담당자 이동연 대표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동연 대표는 2019년부터 5년째 무료 급식을 지원하며 단양군 어르신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하는 뜻깊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쳐있었는



단양노인복지관은 지난 14일 말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했다.

데 삼계탕을 먹으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최은하 관장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 주신 단양흑마늘농지

담당자 이동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단양군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 시원한 여름나기 냉·난방비 지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성금 기탁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이성실 센터장 이하 충북도로공사서비스) 임직원 일동은 지난 20일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난방비 300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충북도로공사서비스 임직원이 참여하는 직장인 나눔캠페인 '착한일터'를 통해 모은 성금으로 최근 폭염 속에서 공공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 임직원 일동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만 원을 기탁했다.

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긴급 냉·난방비를 지원

해 시설 이용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취업자 비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 이동수단 등 개선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 의료, 고용, 주거 등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10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실태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건강 특성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 상태 ▲복지서비스 수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264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사회전환과 함께 장애인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2020년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장애인 가구 구성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2020년의 27.2%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가구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말한다.

장애 발생의 경우,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로 나타났는데, 이 중 후천적 '질환'에 의한 발생 비율이 후천적 '사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은 대학 이상 학력자가 증가하는 등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 중 약 절반가량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약 4.3배 높은 수준인 20.8%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다.

■ 건강 특성

19세 이상의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84.8%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은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이 49.3%, 이상지질혈증이 27.6%, 당뇨병이 25.1%, 골관절염이 23.3%, 만성폐렴이 15.8% 등이 확인됐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장애인은 고혈압 유병률이 52.9%로 전체 인구의 34.8%보다 높았으며, 당뇨병 유병률도 26.8%로 전체 인구의 1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더 큰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애인 중 현재 재활치료를 받는 비율은 23.7%로, 특히 18세 미만 아동 중 재활치료를 받는 비율은 83.5%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중 재활치료 지원 바우처를 이용하는 비율은 89.4%이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9%로, 2020년의 14.0%보다 높아진 했지만, 전체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이다.

또한,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2020년의 33.7%보다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대비 더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의 18.2%보다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대비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의 11.1%보다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대비 여전히 더 높다.

장애인의 흡연율은 15.7%, 고위험 음주율은 5.6%로, 전체 인구 대비하여는 낮았으며,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낮아졌던 비율보다 증가했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은 17.3%이다.

이동불편, 경제적 이유, 시간 부족, 동행자 부재 등이 그 이유로 조사됐다.

정부가 강화해야 할 건강 서비스로는 만성질환 관리,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 등이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 특성

일상생활 수행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3%로, 2020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주된 지원자로 82.1%를 차지하며,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는 13.8%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지원자인 경우가 17.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은 16.0%로 2020년 대비 14.1%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현재 일상생활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62.3%로 2020년 대비 7.4%포인트 증가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지원 서비스의 향상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사회적 특성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으로, 2020년에 비해 조금 상승한 수준이다. 가족관계, 결혼생활,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행복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행복감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외출한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은 재난 대비 시설·장비 지원,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재난 사후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조사됐다.

다.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특히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전체 인구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6개 편의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5개 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고, 이 중 매개시설과 위생시설, 기타시설의 적정설치율 증가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모두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 93.7%(86.7%)가 가장 높고, 서울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다.

아울러 리전 조사연도(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충북 17.5%p(70.8%→88.3%)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되었으며,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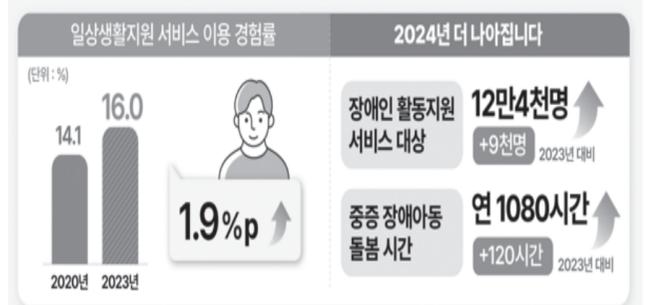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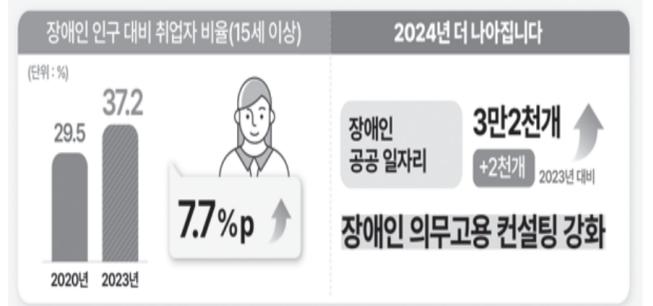
2023년 실태조사로 알아보는 장애인의 삶 변화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 상승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장애인생활도움, 여성장애인가드우미지원사업, 장애인양육지원사업



● 경제활동 참여하는 장애인 비율 7.7%p 높아져



● 야외 이동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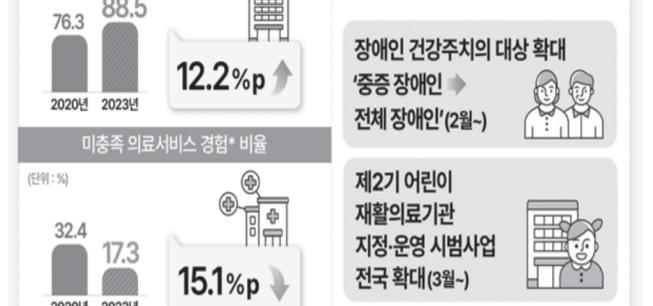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 비율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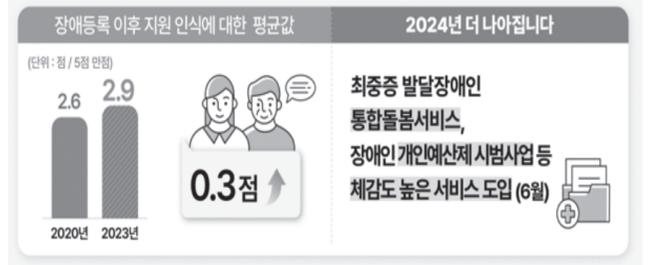
* 재활치료서비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 기타

● 의료이용 비율 높아져



*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 국가와 사회의 지원에 대한 인식도 커져



복지광장

위기 임신 출산과 아동보호, 안전한 출산과 양육 지원



최 명 주

사단법인 희망날개 이사장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이 2000여 건의 유명 아동 사례를 확인했고, 그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병원 밖 출산이나 미혼부, 외국인 자녀의 출생 신고에는 한계가 있다.

고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데 도움이 주지만, 병원 밖 출산이나 미혼부, 외국인 자녀의 출생 신고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및 현실적으로 제도 적용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들이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으로 발전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유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보호출산제에 따르면, 임신부가 전문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산모는 출산 후 7일간 숙려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다.

인도된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 등록 후 입양, 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받는다. 본 필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희망날개는 2019년 설립 당시부터 '위기 임신출산 원스톱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및 위기 임신부와 아동을 지원하며, 초기 임신부 상담과 안전한 출산 및 양육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은 아동 권리 보호의 중요한 시작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첫째,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한 출생 제도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자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둘째,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병원 밖 출산 시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반면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모호해 미혼모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은 119 구급일지로 출생신고를 간소화할 것을 주장해왔

고, 이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 본 단체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에 앞서 전국 3500여 개 주민센터, 소방서, 산부인과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보내 병원 밖 출산 시 119 구급일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셋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기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신생아의 유기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양육 포기를 쉽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동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지는 않는지, 아동으로부터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부모를 악명으로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에는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상담전화(1308)와 16개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포괄적 지원과 상담을 통하여 위기 임신·출산 갈등에 놓인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출산제'는 그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칼럼

출발선에 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안 종 태

충청북도공무원리제육관장

사회복지종사자는 타인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직업군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는 타 직종에 비해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군에 속한다.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정신적 감정을 소진시킬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클라이언트로부터 각종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이 중 정서적 및 언어적 폭력은 흔하게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36%)과 성적 폭력(23%)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도 적지 않다.

또한, 직장 내 근무 여건과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로 심각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현황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신고 건수가 많은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복지종사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권익 침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직업적 가치와 소명감을 갖고 대응하라는 요구를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국가의 업무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진단과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그 결과, 올해 1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문

화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업무를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지원 조사·연구,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권익지원센터는 악성 민원, 부당노동, 직장 괴롭힘 등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지원하며, 종합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필요 시, 노무·법률·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타 인권구제 기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자체에 시정 권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앙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공모하였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도 지자체의 운영 위탁 공모를 통해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의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앙 및 시·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에 즈음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독립성의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침해는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해결 접근 방식 역시 개인의 문제해결이 아닌 공공 문제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과 표준사업 매뉴얼 제공 등 국가 차원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근무환경의 안전상의 문제, 노무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대응절차에 어떤 외부적 간섭없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기 위한 근거 마련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우리는 공공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출범을 기다리는 일반 남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무를 묵묵히 수행해내고 있는 동료 사회복지사들의 고된 하루를 응원한다.

현장의 목소리

왜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하고 있나요?



신 광 열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팀장

많은 사회복지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생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자들에게 사회복지 시작 이유를 무엇이든 물어볼 때 각각 다양한 답변을 할 것이다.

어떤 이는 자신이 배운 복지를 실천해 보고 싶어 시작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혹은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시작했을 수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처럼 각기 다른 사연과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 사회복지를 어떻게 시작하

게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거창한 답변보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사실 단순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을 뿐이고, 그 결과 가장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직장이 사회복지 분야였기에 특별한 사명감이나 큰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걸음은 2016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가족지원팀의 일원으로 중등부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창시절 봉사자로서 발달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과 직접 만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각각 가진 개성이 너무 다양하고, 필자가 하는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주변의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지만, 그 말이 깊게 와닿지 않았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사회초년생으로서 넘치던 열정은 줄어들고, 활동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 약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을 맞아

방학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었다.

여느때와 같이 활동을 끝마치며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하고, 남은 방학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며, 주말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될 때 만날 것을 약속하며 활동을 마쳤다.

참여 학생들이 즐겁게 웃으며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가던 중, 유독 말을 듣지 않고 장난도 많이 치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 한 명이 평소와는 다르게 진중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고생 많았어요. 방학 동안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이 인사가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가볍게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매우 큰 힘이 되고 감사한 말이었다.

그 말은 필자가 항상 고민하던 '잘하고 있는 게 맞나?'를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확신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격려나 칭찬보다도 당사자의 한 마디가 더 간절히 듣고 싶었던 것이다.

주변에서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말해도, 당사자들이 느끼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가장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이 많던 친구가 진중하게 인사하자, 그 말이 더욱

깊게 가슴에 와닿았다.

그때 들은 그 한 마디는 지금까지도 필자에게 사회복지자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누군가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그냥 어쩌다 보니 하게 되었다고 답하겠지만, '왜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이러한 활동이 크게 눈에 띄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싶어 장애인복지관을 떠나 노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든, 나는 여전히 사회복지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사로 남고 싶다.

필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력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여정은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얻는 보람과 의미는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값진 것이기에, 계속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지인에게 몇 달전 사기를 당하여 일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지인에 대한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인이 아무리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저의 금전적 손해가 전보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사기죄의 범인인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즉 가해자의 사기범행에 대한 증거를 본인이 직접 확보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형사배상명령제도

후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형사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내용을 심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정보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그 정보를 이용하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배상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동정

■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직업장 > 원장 이대형 / 6월 24일자

■ 청주복지재단 > 상임이사 최은희 / 8월 6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사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24년 우리은행 취약계층 결핵식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전국 단위 모집) * 혼인신고 대상자, 사실흔 관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웨딩대관 제공(우리은행 본점), 출장 뷔페 제공(300만원 내), 웨딩카 지원 등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고
■ 지원규모: 하반기 취약계층 최대 9개 커플
■ 지원일정: 지원 대상자 발표 후 선정 기관에서 개별 안내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개인 신청 불가)
■ 참고: www.s-win.or.kr

■ 접수기간: ~2024.9.30.(월)
■ 접수방법: 공모접수 플랫폼(gwon.net/GKL사회공헌상)을 통해 온라인 접수
[희망나눔 은, 블루포스트케어와 함께하는 '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지정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이후 상시 접수 안내
■ 사업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신청항목: 의료비(병원비,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 기타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hopeon.or.kr) 접수 또는 이메일 중 택1(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만 신청 가능)

[밀알복지재단, MBC 희망노트 장애우키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항목: 의료비, 약제비, 생계비, 거주지 이전비 등
■ 신청대상: 아동/청소년 포함 2인 이상의 가정 중, 1인 이상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수술/치료가 필요한 가정
■ 지원금액: 1가정당 1500만원(방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예정)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해 이메일로 발송
■ 신청기한: 상시모집
■ 참고: miral.org

[국네이버스,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공공의용활동 지원사업 '우리 함께(2차) 사업']
■ 신청대상: 전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
■ 신청방법: 신청 양식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2024.9.13.(금)
■ 지원내용: 프로그램(기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단회기/다회기 프로그램), 환경개보수(안전한환경 구축 및 노후 공간 개선, 노후 기자재 교체 및 신규 기자재) * 프로그램 또는 환경 개선 중 한 분야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 사업수행기간: 2024.10.14.~11.29
■ 참고: gnpartner.kr

[하트-하트재단,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지원대상: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 중위소득 150% 이내, 만 19세 이하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자에 한함
■ 지원내용: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치료비 입금 형식이 아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통해 진료 지원 형식으로 진행
■ 지원기간: ~2024.12.31.(화),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사회사업실 통해 신청 및 이메일 제출(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heart-heart.org

[밀알복지재단, SBS와 함께하는 202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국내우키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포함 2인 이상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가정
■ 지원분야: 의료비, 재활치료비, 약제비, 생계비, 거주지 이전비 등
■ 지원금액: 1가정 당 1500만원(방송일로부터 1개월 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신청기한: 상시모집
■ 선정결과: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개별 연락
■ 참고: miral.org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헬렌켈러룸' 입소자 모집]
■ 모집대상 및 입소 조건: 동반인과 입소가 가능한 전국에 거주하는 시정각장애인 당사자(시정각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
■ 모집기간: 상시
■ 시설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휘경동 주공아파트 1차)
■ 이용료: 생활비 실비 부담
■ 입소기간: 14일
■ 입소 우선순위: 1순위-지방 거주 시정각장애인, 2순위-지방 거주 시정각장애 아동을 둔 부모, 3순위-수도권 거주 시정각장애인
■ 참고: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 신장이식수술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내 저소득층 신장장애인
■ 신청기간: ~2024.12.13.(금)까지
■ 지원내용: 신장이식수술비(잔액 발생 시 공여 수술비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0만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외 저소득층: 400만원 한도
■ 지원시기 및 방법: 수술비 최종정산 후 1개월 이내 치료병원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신청서 등 작성 후 이메일 접수 (miral9135@miral.org)
■ 참고: www.miral.org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4년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9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234-0840~2) * 신청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GKL사회공헌재단 '2024 GKL 이웃사랑실천상·사회공헌상' 후보자 모집 공고]
■ 접수대상: 선행(이웃사랑)을 실천한 대한민국 국민(합법적 체류 외국인 포함)
■ 시상내역: GKL이웃사랑실천상(상장, 부상 및 기념품), GKL사회공헌상(대상-상패 및 상금 2000만원, 행복나눔상, 사랑나눔상, 희망나눔상-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자원 봉사자 모집

- ▶ 도시락 배달 및 수거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834-3411
▶ 물리치료실 업무보조 관리센터: 단양노인복지관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421-7100
▶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업무보조 관리센터: 청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263-1818

- ▶ 경로식당 조리봉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288-1428
▶ 사무 업무보조 관리센터: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845-7505
▶ 초·중·고등학생 돌봄 및 학습지도 관리센터: 사랑의올타리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288-7414

- ▶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보조 관리센터: 명락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648-3337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꿈지락 봉사단', 천연 삼베수세미 제작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꿈지락 봉사단'은 지난 8일 진천군노인복지관에서 삼베수세미를 제작했다. 꿈지락 봉사단은 월1회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카페에서 삼베실과 코바늘을 이용하여 삼베수세미를 만들고 있으며, 제작된 수세미는 진천군민 약 200명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안영순 단원은 "마냥 즐겁게 만들다 보니 수량이 제법 많아져 주 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수요가 많은 곳에 기부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 것"이라며 다짐을 보였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로 시작된 봉사활동은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나눔과 실천을 몸소 보여줄 예정이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Advertisement for National Scholarship (국가장학금) with details on application periods (8.14. ~ 9.11.), eligibility, and application methods. Includes QR codes for application.

복/지/만/평

목적

이창신 www.bokmani.com

Illustration of a hand pointing to a path with a goal, accompanied by text: #내비게이션 #목적지. 길을 잘 찾아가려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이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중요합니다.